

### 제3절 황현의 생애와 사상

19세기 중반이래 조선은 내외외환에 시달렸다. 안으로는 농민의 저항운동이 들불처럼 번졌으며, 밖으로는 이양선(異樣船)의 출몰로 상징되는 구미 제국의 침탈이 자행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메이지유신을 단행한 일본까지 가세하여 동아시아에서의 제국주의 세력들은 점입가경의 쟁탈전을 전개하였다. 이 시기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일상을 ‘시’와 ‘역사’라는 방법으로 묘사했던 인물이 바로 황현(1855-1910)이다.

황현은 조선의 마지막 의로운 선비이자 시인, 역사가로 잘 알려져 있다. 황현이 태어나 활동했던 시기는 그야말로 격변기였다. 조선의 성리학적 지배이데올로기는 점차 무너져 내리고 양반사회의 신분체제도 급속히 와해되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제국주의 열강의 정치·경제적 침탈로 말미암아 조선은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고 있었다. 이때 황현은 시인이자 역사가의 자세로 일관하다가 자신의 신념과 지조를 지키기 위해 순절하였다. 따라서 황현에 대한 연구는 그의 명성만큼이나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역사학과 시문학 분야가 주류를 이루며, 아울러 활동과 사상에 대한 접근도 꾸준한 편이다.<sup>124)</sup> 이에 선행의 연구업적을 토대로 그의 생애를 세 시기로 나누어 그의 저술과 활동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24) 임경숙, 「매천 황현의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인식」, 순천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1-2쪽.

#### 1. 황현의 가계

황현은 1855(철종 6)년에 태어나 19세기 중반과 20세기 초반 조선이 망해가던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놓았다. 그의 본관은 장수(長水), 자는 운경(雲卿), 호는 매천(梅泉)이다. 그의 먼 조상으로는 청백리로 유명한 황희(黃喜) 정승이 있고, 임진왜란 당시 충청병사로 군공을 세우다 진주성전투에서 순국한 진(進)은 그의 10대조이다. 그의 8대조 위(暉)는 병자호란 당시 남원에서 의병을 일으킨 것으로 유명하나, 그 이후 이렇다 할 관직에 오른 조상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의 선조는 전북 남원에 대대로 거주하였다. 그의 3-4대조까지 가난을 면치 못하다가 조부인 직(楫)에 이르러 몰락한 집안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

125) 『梅泉集』 권 6, 「王考手蹟跋」; 임형택, 앞의 글, 776쪽.

126) 임형택, 앞의 글, 776쪽.

127) 임경숙, 앞의 논문, 5-9쪽 및 黃秀貞, 「梅泉詩의 이해를 위한 傳記 研究」, 『古詩歌研究』 10, 2002, 158-296쪽 참조.



사진2-92 : 황현의 옛 생가 복원 (광양읍 봉강면 석사리 서석)

의 조부는 가난을 떨치기로 굳게 결심하고서 10여 년에 걸쳐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였다.<sup>125)</sup> 그의 조부는 당시 양반가(兩班家)로서는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상업활동을 통해 치부하였다. 후손의 장래를 위해 재산을 모았으나 기대하였던 큰 아들이 갑자기 죽자 둘째아들의 자식이었던 매천의 공부를 위해 재산을 사용하게 했다. 조부의 이른바 ‘전조(佃租)와 화식(貨殖)’의 덕택에 매천은 편히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의 조부는 가난하여 자신이 배우지 못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여 책을 사들이고 선생을 초빙하여 자식은 물론 인근의 가난한 재사(才士)들까지 함께 공부시켰다.<sup>126)</sup>

그러나 할아버지의 둘째아들이었던 매천의 부친인 시묵(時默)은 남다른 식견을 갖지는 못했으나 자식에 대한 교육열은 대단하였다. 그의 부친 역시 조부와 마찬가지로 재산을 기울여 1천여 권의 서적을 구비하고서 매천의 학문을 뒷바라지했던 것이다. 이처럼 조부와 부친 2대에 걸친 경제력과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매천의 학문이 꽃필 수 있었다.

한편, 매천은 광양군 봉강면 석사리 서석(鳳岡面 石社里 西石) 마을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생전에 구례군 간전면 만수동(求禮郡 良田面 萬壽洞)과 광의면 수월리 월곡(光義面 水月里 月谷) 마을로 집을 두 번이나 옮겼다. 이로 인해 매천의 생애는 세 시기로 나누어 검토되기도 한다.<sup>127)</sup> 이 글에서는 광양 서석마을에 지내며 수학기와 사상형성기를 거친 다음, 만수동에 칩거하며 혼신을 다해 저술에 몰두했던 시기, 그리고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방황하다가 끝내 자결하였던 월곡에서의 생활을 통해 그의 생애를 조명하고자 한다.

## 2. 학문적 수학 과 교우관계

황현은 부친 시묵과 풍천노씨(豊川盧氏)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나이 열여섯에(1871) 해주오씨(海州吳氏)와 혼인하였다. 어려서부터 총명한 아이로 소문이 났을 만큼 어떤 글이라도 한 번 읽거나 보면 잊어버리는 일이 없었다. 그는 공부에 몰두하여 놀이를 즐겨 하지 않았으며, 문리를 일찍 터득하여 스승을 대신하여 동년배들을 가르칠 정도였다.<sup>128)</sup>

128) 黃瑗, 「事行零錄」; 황수정, 앞의 글, 260쪽.

10세를 전후한 시기부터 그의 시명(詩名)이 원근에 널리 알려졌다. 이 무렵 그는 구례의 천사(川社) 왕석보(王錫輔, 1816-1868)에게 수학하였는데, 그의 스승 역시 매천의 시재(詩才)를 아끼고 칭찬해 마지않았다. 그가 비록 스승의 가르침을 받은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훗날 시인으로서 대성할 수 있었던 원인의 하나로 왕석보의 가르침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는 14-5세 무렵 향시(鄕試)에 응하여 순식간에 답안을 작성하자 함께 응시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찬사를 보냈다고 한다. 17세에 순천에서 실시하는 백일장에 응시하여 문명(文名)을 떨쳤다. 이때부터 그는 호남 일대에서는 ‘광양의 황신동(黃神童)’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는 과거에 응시하는 한편 자신의 시재(詩才)를 닦는 데에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스무 살에 근체시(近體詩)를 처음으로 연습하여 상경 이전에 약 110수의 시를 완성하여 『圓蕉雜畫』라는 시집으로 묶어 놓았다.<sup>130)</sup> 당시 그가 지은 시의 내용에는 사회적 모순을 고발하고 농촌의 처참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경우가 적지 않다.<sup>131)</sup> 어쩌면 그는 경세가로서보다는 시인으로서의 재능이 출중하였고, 훗날 시인으로서의 명성이 더 자자하였다.

매천은 화려한 글솜씨가 꽃을 피우던 스무 살 무렵 자신이 지은 시를 들고 서울로 올라갔다. 향리에서 문학으로 이름을 날렸다고는 하나, 자신의 글재주를 서울에서 가늠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출세를 열망하는 부모의 권유로 서울에서 과거를 준비할 목적으로 향리를 떠났을 것이다.<sup>131)</sup> 그는 당시 문장가로 유명한 영재(寧齋) 이건창(李建昌, 1852-1898)을 찾았다. 당시 영재는 왕실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관료이자 문장가로 이름이 높았다. 그런데 당시 이건창은 충청도 암행어사 시절 풍양조씨 권세가인 조병식(趙秉式)을 탄핵한 문제로 유배중이어서 만나지 못하고 말았다. 이듬해 이건창이 유배지에서 돌아오자 그는 다시 서울에 올라가 이건창과 만나 시문을 주고받으며 함께 지내는 일이 많았다.

서울에서 영재와의 만남을 통해 추금(秋琴)姜위(姜瑋, 1820-1884), 창강(滄江) 김택영(金澤榮, 1850-1927) 등과 사귀게 되었다.<sup>132)</sup> 특히, 영재와, 창강 그리고 매천은 허물없는 벗으로 지낼만큼 금방 친숙해졌으며, 다같이 1850년대에 출생한 세대로서 문단의 신예들이었다. 그중 매천이 가장 어렸으나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서울의 문단에서 명성을 얻어갔다. 이때부터의 인연으로 영재·창강·매천은 ‘韓末三才’라 불려졌으며, 신교(神交)라 할만큼 서로를 믿고 아껴주었다. 그 밖에도 당시의 명사들과

130) 기태완, 『黃梅泉詩研究』, 보고사, 1999, 55쪽 및 황수정, 앞의 글, 261쪽.

131) 황수정, 앞의 글, 262쪽.

131) 이이화, 「황현의 삶과 사상」, 『매천 황현의 역사의식과 문학』 발표요지, 1999, 8쪽.

132) 임형택, 앞의 글, 777쪽.

교유하였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무정(茂亭) 정만조(鄭萬朝) · 하정(荷亭) 여규형(呂圭亨) 등과도 친분이 두터웠다.

또한 이 시기에 그는 대학자를 찾아 처세관과 현실인식에 대한 가르침을 구하기도 하였다. 당시 호남지역에서 노사학파(蘆沙學派)를 형성한 기정진(奇正鎭)을 찾아가 사상적 교감을 나누었다. 그는 노사의 학문을 높이 평가<sup>133)</sup> 하면서도 도학(道學)의 비현실적 인식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노사는 떠나가는 매천에 대한 애뜻한 심정이 담긴 시를 지어주었다.<sup>134)</sup> 노사는 매천을 “지극히 귀한 보배가 올 때는 잡아두기 어려워 한편 놀랍고 또 한편 근심스럽네. 쉬이 얻은 것은 잃기도 쉬운 법 바라건대 연잎 위의 이슬을 보게나”라고 표현하였다. 후학인 매천을 놓치고 싶지 않은 심정이 잘 배어나 있는 것이다.<sup>135)</sup>

한편, 매천은 서울을 왕래한지 약 10년만에 과거에 응시하였다. 그는 과거에 급제하여 출세하겠다는 욕망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자신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부친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특별히 시행하는 보거과(保舉科)에 응시하였다. 그는 초시(初試) 초장(初場)에 장원으로 뽑혔으나, 꾀죄죄한 용모의 그가 시골의 한미한 출신임을 알게 된 시관(試官) 한장석(韓章錫)이 2등으로 낮추어 버렸다. 그처럼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의 부패한 과거제도 아래에서 과거에 합격하기란 하늘에 별 따기임을 확인한 것이다. 결국 그는 과거를 포기하고 낙향하고 말았다.

하지만 부친의 엄명으로 다시 서울에 올라가 성균관 생원시(生員試)에 응시하였다. 당시 정범조(鄭範朝)가 시관이었는데, 정범조는 매천의 친구인 정만조와 집안의 형제 사이였다. 황현의 재주를 안타까워하던 정만조가 부탁하여 매천은 생원시 1등으로 뽑혔다. 그리하여 그는 33세에 성균관 생원이 되었으나, 이내 그만두고 향리로 돌아왔다. 당시 대외적으로는 구미열강의 침탈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부패한 조정은 그것을 해결할만한 능력을 갖추기는커녕 세도가들의 매관매직의 전횡만 날로 커질 뿐이었다. 정부의 행태에 낙담한 그는 출세할 뜻을 완전히 접고 문인들과 어울리는 생활도 청산하고서 이미 2년 전에 이거한 구례 간전면의 만수동에 칩거하였다.

그를 아끼던 서울의 친구들이 상경할 것을 권유하면 그는 “그대들은 어찌 나를 귀신나라의 미친 사람들의 무리에 들어가게 해서 귀신이나 미치광이가 되게 하려는가”하며 나무랐다. 농촌으로 돌아간 매천은 조용히 학문에 전념하였다.

133) 황현, 김준역, 『매천야록』, 교문사, 176쪽.

134) 금장태 고평직, 『續儒學近百年』, 여강출판사, 1989, 260-1쪽.

135) 위의 글, 261쪽.

### 3. 저술활동에 매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천은 1886년, 그러니까 나이 서른하나에 그가 태어난 서석마을에서 구례 간전면 만수동으로 이거하였다. 서울을 왕래한지 10년만에 과거제도의 충격적인 부패상을 직접 체험한 후 서울과 절연하기로 결심하고 지리산과 섬진강이 넘겨다 보이는 백운산 자락에 깊이 침거한 것이다. 이때부터 구례 광의면 월곡(月谷)마을로 이사한 1902년까지 약 16년 동안 만수동에서 생활하였다.

그의 만수동 시절을 흔히 은거시기라고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만 볼 수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이 시기는 문학적으로 더욱 원숙해지고 역사가로서의 면모는 더욱 철저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의 유명한 저술, 이를테면 『매천야록(梅泉野錄)』과 『오하기문(梧下記聞)』과 같은 대표적인 저술이 이 시기에 시작되거나 완성되었고, 아울러 후진 교육에 전념했음을 알 수 있다.<sup>136)</sup>

그는 출세를 바라던 부모의 만류를 뿌리치고 동생 황원(黃瑗, 1870-1944)의 일가를 포함한 식솔들을 이끌고 백계산 골짜기를 지나 도솔봉·형제봉을 넘어 백운산 남서쪽 만수동에 틀어 앉았다. 그는 이곳에서 매화나무를 심고, 개울 아래에 옹달샘을 파서 식수를 해결하였으며, 초옥(草屋) 몇 칸을 지었다. 그는 선비의 절의(節義)를 상징하는 매화와 맑고 깨끗한 석간수가 흐르는 샘에서 연유하여 ‘매천(梅泉)’이라 자호(自號)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그는 1890년에 서재인 ‘구안실(苟安室)’을 지었다. 구안실 외에도 삿갓모양의 일립정(一笠亭)을 지어 더위를 피하는 한편, 후학들을 지도하는 데에도 이용하였다. 이처럼 그는 만수동에서 3천여 권의 책더미에 묻혀 문인(門人)들을 가르치는 한편, 독서와 저술에 열중하였다. 따라서 ‘매천학(梅泉學)’의 산실은 백운산 자락의 구례 만수동이라 할 수 있다.

지금도 만수동에는 황현이 심었다는 고매(古梅) 몇 그루가 봄철이면 그윽한 향을 내뿜고 있으며, 매천에는 맑은 물이 넘쳐흐른다. 그러나 그가 공부한 구안실이나 일립정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여서 아쉽게 그지없다.<sup>137)</sup>



매천야록

136) 崔昇孝 편, 『國譯 黃梅泉 및 關聯人士 文墨萃編』上, 미래문화사, 1985, 146쪽.

137) 구안실과 일립정은 매천이 월곡으로 이사한 뒤에 함께 불탔다고 한다(『續修求禮誌』, 1962; 황수정, 앞의 글, 269쪽).

그런데 수년전까지 만수동에는 구안실 아래쪽에 ‘운산서실(雲山書室)’이란 제호(題號)가 붙은 초라한 민가 한 채가 있었다. 그 집은 수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2001년 겨울에 헐어버리는 도중 잔해더미 속에서 ‘삼호정상량문(三乎亭上樑文)’이 발견되었다. 이 상량문에 의해 이 집이 황매천의 유지(遺址)이며, 삼호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삼호정의 명칭은 일제 강점기에 붙여지고 어느 때인가 다시 운산서실이라는 제호가 붙게 된 듯한데, 어쩌면 이곳이 일립정의 유지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당시 그는 세상을 저버리고 자연을 벗삼아 술과 인간 세상에 글 아는 사람 노릇 어렵기만 하구나 해서 시에 탐닉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현실과 동떨어진 관념적인 학문을 버리고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을 지향하였다. 특히 조선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현실문제의 해결에 노력하였다. 만수동시절 매천은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농촌의 상황과 농민이 처한 고단한 현실을 직시하였다. 그는 “실학이 없으면 농민이 먼저 병 들고, 백성의 일을 못 본 척하는 사대부가 어찌 사민(四民)의 으뜸이 되겠는가”<sup>138)</sup> 라고 하였다. 요컨대, 매화로 상징되는 절의를 숭상하는 한편 우국(憂國)과 시무(時務)에 뜻을 두고서 면학했던 것이다. 이러한 정신이 그의 시에 잘 반영되어 있다.<sup>139)</sup> 그는 평생동안 1,051수의 시를 지었는데, 그 중 40여 수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만수동에서 지었다고 한다.<sup>140)</sup> 그의 시는, 김택영에 의해 ‘맑고 간절하며 탈속한 강직함이 있어서 우리나라 예원(藝苑)에 몇 손가락에 꼽힌다’고 평가되었다. 시의 주제로는 음풍농월(吟風弄月)보다는 고금에 절의를 지킨 일을 많이 읊었다. 시의 주제에도 그의 치열한 현실인식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그는 만수동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역사와 경제학·병학·형정·조세 등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쏟았다. 그는 1894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저술에 진력한 것으로 보인다. 1894년은 매천에게 잊지 못할 시기였다. 동학농민혁명·청일전쟁·일본군의 경복궁침입·갑오개혁 등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터졌다. 이듬해에는 명성왕후가 일본남인들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되었으며, 단발령과 의복제도의 개편 등 자고 나면 충격적인 일들이 쏟아졌다.

특히, 그는 동학농민군의 거센 불길이 호남지역을 휩쓸었던 상황을 만수동에서 직접 보고 들었다. 당시 농민들의 절규를 체험한 그로서는 또 한번의 충격을 경험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중앙정부의 부패로 인하여 재야의 재

138) 최승효 편, 앞의 책, 52쪽.

139) 임형택, 앞의 글, 778-779쪽.

140) 황수정, 앞의 글, 273에서 재인용.

능있는 양반유생의 허탈감을 체험한 것이었고, 이번에는 지방관과 탐관오리의 부패로 말미암아 농민들이 죽창을 들고 세상을 뒤집은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이에 당대사(當代史)에 대한 정리가 시급하다도 판단하였다. 조선이 지향했던 사대부 중심의 지배체제를 견지하면서 춘추필법에 의해 후세를 경계하고 귀감을 삼기 위한 역사의 정리를 시작하였다. 다시 말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역사저술을 시도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대표적 저작인 『매천야록(梅泉野錄)』·『오하기문(梧下記聞)』·『동비기략초고(東匪紀略草藁)』 등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매천야록』을 비롯한 그의 저술은 자신이 보고 들은대로 기록하였는데, 그의 저술을 보지 않고는 우리의 근대사를 연구할 수 없을 정도로 보배와 같은 사료집으로 평가받는다.

나아가 그는 1899년에 「언사소(言事疏)」를 올려 자신의 현실인식의 일단을 피력하였다. 「언사소」에서 제시한 그의 시무책을 요약하면, 첫째 언로(言路)를 개방할 것, 둘째 법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것, 셋째 형정을 엄하고 바르게 하여 기강을 진작시킬 것, 넷째 절약과 검소를 숭상하여 재원을 넉넉히 할 것, 다섯째 척신을 축출할 것, 여섯째 공정한 과거제의 시행을 통하여 어진 인재를 등용할 것, 일곱째 넉넉한 임기로 책임행정을 구현케 할 것, 여덟째 군제를 개혁할 것, 아홉째 양전을 철저히하여 공정하게 세금을 거둘 것 등이었다.<sup>141)</sup>

그는 외세를 물리치기 위해 내수자강(內修自強)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만 외세를 물리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경국제세와 안민의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보았다. 이를 위해 동도서기론적 입장에서 개화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상과 같이 매천의 시작과 저술 활동은 대부분 만수동 시절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매천의 서재였던 구안실은 그야말로 ‘매천학’의 산실이었던 것이다.

1902년에 그는 구례 만수동에서 광의면 월곡 마을로 이사함으로써 현실에 한걸음 다가서려는 자세를 보인다. 그의 월곡 이거는 세상의 변화를 좀더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역할을 찾으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짐작된다. 칩거하며 저술에 전념하다가 「언사소」를 계기로 현실에 참여할 결심을 굳히고 좀더 적극적으로 현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변화를 도모하였던 것이다. 물론 그러한 계기는 동학농민혁명을 목격한 충격과 그 후 일련의 국가적 위기가 크게 작용했던 것 같다. 그의 세 차례의 이사과

141) 『매천전집』 상, 아세아문화사, 440-460쪽; 이장희, 앞의 글, 256-259쪽.

정은 당시 율곡은 지식인의 방황과 좌절, 그리고 시대정신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겠다.

#### 4. 교육계몽과 순국 ; 구례 월곡에서의 생활

황현의 마지막 거주지였던 월곡은 그의 스승 왕석보가 거주했던 천변(川邊)마을과 지척에 있었다. 천변에는 스승의 아들로 동학이자 친구인 왕사천(師天)·사찬(師瓚) 등이 살고 있었다. 이들과 함께 그의 친구인 이기(李沂) 등의 권유로 궁벽한 만수동에서 구례읍과 가까운 월곡으로 옮기게 된 것이다.<sup>142)</sup> 매천은 이곳에서 절명할 때까지 약 8년간 머물렀다. 그의 서재에는 성인당(成仁堂) 또는 대월헌(待月軒)이라는 편액을 걸어두었는데, 당시 그의 심경을 짐작케 해준다. 사대부로서 인(仁)을 이루려는 의지와 자연을 벗삼으려는 마음이 엇보이기 때문이다.

월곡으로 이거한지 3년이 지난 1905년에 을사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서 매천은 또다시 실의와 충격에 빠졌다. 그는 나라가 망해가는 슬픔을 달랠 길이 없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비분강개하였다. 당시의 심정을 시로 남겨놓았는데, 「聞變三首」와 「5애시(五哀詩)」가 그것이다. 전자는 나라잃은 슬픔을, 후자는 을사조약에 반대하며 순국한 조병세(趙秉世)·민영환(閔泳煥) 등을 애도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앞서 김택영이 중국으로 함께 망명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떠나지 못하였다. 홀로된 중부(宗婦)를 염려한 때문이라거나 여비를 마련하지 못한 사정을 들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농촌지식인으로서 향토수호의 의지도 작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는 암담한 시국을 한탄하며 율곡의 나날을 보내어야 했다. 하지만 나라가 어지러울수록 절의와 지조를 지키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그는 중국의 역대 절의지사로서 알려진 매복(梅福)·고염무(顧炎武) 등 10명을 선정하여 송태회(宋泰會)로 하여금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하여 자신의 자작시를 써넣은 후 10쪽 병풍을 만들어 방에 두고서 그들의 행적을 기렸다. 이는 난세일수록 더욱 몸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려는 의지의 소산이라 하겠다.

한편 그는 향리에 호양학교(壺陽學校)를 세워 신학문을 가르치

142) 황수정, 앞의 글, 281쪽.

사진2-94 : 호양학교에서 사용한 중(구례군 교육청 보관)





며 계몽운동의 지방확산에 기여한 바 있다. 1908년 8월 그는 제자인 황원·김상국 등을 비롯한 지방유지들과 함께 근대적 문물을 가르치기 위해 학교를 세웠다. 그리하여 그의 문인들이 교사로 참여하여 자제교육에 앞장섰다. 하지만 재정난과 일제의 탄압으로 말미암아 매천의 순국직후에 폐교되었다.<sup>143)</sup> 그가 근대적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 교육계몽운동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1910년 8월에 이른바 경술국치(庚戌國恥)의 소식이 전해지자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주변을 정리한 다음 유서와 절명시 4수를 남기고 자결하였다. 그가 자제들에게 자신이 죽어야 할 명분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내가 가히 죽어 의리를 지켜야 할 까닭은 없으나 단 국가에서 선비를 키워온 지 5백년에 나라가 망하는 날을 당하여 한사람도 책임을 지고 죽는 사람이 없다. 어찌 가슴아프지 아니한가. 나는 위로는 황천에서 받은 올바른 마음씨를 저버린 적이 없고 아래로는 평생 읽던 좋은 글을 저버리지 아니하려 길이 잠들려 하니 통쾌하지 아니한가. 너희들은 내가 죽는 것을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sup>144)</sup>

1910년 음력 8월 7일(양 9. 10) 그는 조선의 마지막 선비로서의 자세를 지키기 위해 세상을 버렸다. 그러나 그가 지키고자 했던 지식인으로서의 양심과 의리정신은 지금까지 오롯이 남아 후세의 귀감이 되고 있다.

143) 황수정, 앞의 글, 289쪽.

144) 「遺子弟書」; 이장희, 앞의 글, 248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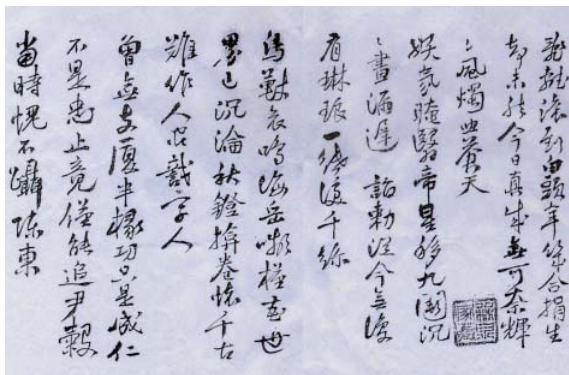


사진2-95 : 절명시 4수



사진2-96 : 매천 황현의 묘

## 6. 매천의 인물과 학문

매천은 비록 체구는 작고 병이 잦았으며, 용모 또한 뛰어난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약한 것은 원수같이 여기는 등 기질이 호방하여 탈속한 인물이었다. 그의 방대한 저술은 먼저 『매천집』·『매천속집』이 1911년에 김택영에 의해 중국 상해에서 출간되었다. 『매천야록』은 집안에 비장되어 오다가 해방을 맞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국사료총서 제1집으로 1955년에 간행되어 햇빛을 보게 되었다. 『매천야록』은 고종즉위이래 1910년까지 47년간의 당대사를 기록하고 있다. 1910년 8월 22일 이른바 ‘합방조서’로부터 9월 10일 황현이 순절할 때까지의 기록은 그의 문인 고용주(高壙柱)가 추기(追記)한 것이다. 갑오이전의 기록은 간략하고 그 이후의 내용은 상세한 편인데, 갑오이전은 ‘수문수록(隨聞隨錄)’ 하였으며, 그 이후는 편년체로 기록되어 있다. 『매천야록』과 『오하기문』 등의 저술에서 그는 시국의 변화와 서민의 여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실을 남겼다. 『매천야록』은 김준의 번역으로 교문사에서, 『오하기문』은 김종익의 번역으로 역사비평사에서 출간되었다. 따라서 그는 시인이자 학자보다는 역사가로서 더욱 빛을 발한다고 하겠다. 한편, 1978년에 이르러 매천집과 매천야록을 합하여 『매천전집』 상·하(아세아문화사)로 간행되었으며, 1984년에는 전주대학교에서 『매천전집』(전5책)을 간행한 바 있다.



사진2-97 : 매천 황현의 영정



사진2-98 : 매천 황현의 동상

그의 저술에서 알 수 있듯이 매천은 시문에 능했으나, 특히 시인으로서 문명을 떨쳤다. 하지만 그가 남긴 대표적 저술로는 당대의 역사를 기록한 『매천야록』·『오하기문』을 꼽는다. 따라서 그는 춘추필법의 역사의식을 지닌 역사가로서의 면모가 강한 편이다. 요컨대, 그의 학문적 성향은 다산학에 심취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실학적 전통을 계승한 동도서기론을 개화사상을 지향함으로써 만년에 교육계몽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부패한 현실을 개혁하기 위한 지식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끝으로 올곧은 지식인으로서의 의지가 잘 묘사된 절명시 제3절을 소개하고자 한다.

짐승도 슬피울고 강산도 시름하는구나 / 鳥獸哀鳴海岳嘯  
 무궁화 이 강산은 이미 사라졌도다 / 槿花世界已沉淪  
 가을 등잔불 아래 책을 덮고 수천 년 역사를 회고하니 / 秋鐙卷懷千古  
 참으로 지식인이 되어 한평생 굳게 살기 어렵구나 / 難作人間識字人

 집필 : 순천대학교 박물관장 홍영기